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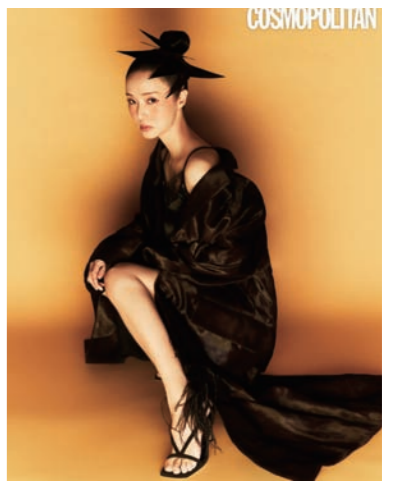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30)가 그리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26)이 그리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영화 '리미트' 개봉 앞둔 이정현, 출산 후 화보 "저보고 독하대요"



배우 이정현이 30일 화보를 공개했다. 뉴스

배우 이정현이 30일 화보를 공개했다.

이정현은 31일 영화 '리미트' 개봉을 앞두고 있다. '리미트'는 주인공부터 악당까지 모두 여성인 범죄스릴러물이다. 그녀는 "범죄스릴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는 대체로 남자들이 주연이었거든요. 이 영화는 경찰 범죄자-흑막까지 전부 여자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었죠"라며 출연 계기를 밝혔다.

대역 없이 고강도의 액션 연기를 소화한 이정현은 "정말 신났다"면서 "숙소에 들어와 보면 여기저기 멍들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니터 해 보니 몸 던져 연기한 보람이 있었어요"라고 했다. 문정화·진서연과의 합에 대해선 "다들 물 만난 고기 같았다. 한번도 연기 때문에 NG가 난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정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전사 이미지'에 대해 "강단이 없진 않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독하대요. 임신하고 14kg이 썩서 출산 3개월 뒤 활영이 가능할까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썩던 14kg을 다 뺐어요"라고 했다.

이정현은 배우로서 나이 드는 건 "멋 있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리미트" 같은 여성 원톱 영화가 나오기 정말 힘들 거든요. 다행인 건 OTT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배우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라며 "콘텐츠가 다양화되는 흐름을 따라 연출자·제작자분들께서 나이 많은 여성 이야기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한술밥' 황의조·황인범, 나란히 그리스리그 데뷔

의조, 입단 나흘 만에 첫 경기... 안정적 몸놀림 '눈도장' 인범, 함께 발 맞춰... 경기 내내 중원 누비며 맹활약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0)와 황인범(26)이 나란히 그리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올림피아코스는 30일(한국시간) 그리스

트리폴리의 테오도로스 콜로코트론니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와의 2022~2023시즌 그리스 슈퍼리

그 2라운드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승점 1을 추가한 올림피아코스는 리그 3위(승점 4로 올라섰다.

황의조는 교체 출전으로 올림피아코스 첫 경기를 소화했다.

그는 후반 25분 게오르기오스 마수라스 대신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는 지난 26일 보르도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한 뒤 올림피아코스로 한 시즌 임대됐다. 입단 나흘 만에 데뷔전에서 안정적인 몸놀림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날 경기에선 황인범도 함께 발을 댔다.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경기 내내 중원을 지켰다.

황인범은 지난 22일 지아나나와의 개막전에 부상으로 결장해 올림피아코스 소속으로 정규리그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플레이오프에선 2경기에 출전해 1골을 넣은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한국 '사격의 별' 총출동... 한화회장배 대회 오늘 '팡파르'

5대 메이저대회... 2년 만에 다음 달 6일까지 창원서 열려 아시안게임 등 대표선발에 성적 반영... 치열한 승부 예상

2년 만에 돌아온 한화회장배 전국사격 대회가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다.

사격 모든 종목의 전 부문(일반, 초·중·고, 단체, 일반, 장애인)이 동시 개최되는 이 대회는 봉황기·경찰청장기 등과 함께 국내 5대 메이저 대회로 분류된다.

다른 국내 사격대회와 달리 장애인 선수들을 포함한 3000여명의 국내 사격 선수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다.

출전 선수 면면도 화려하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설욕을 다짐하는

'사격황제' 진종오를 비롯해 김장마·김민정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역배우 출신 청소년 국가대표 박민하 등이 자웅을 겨룬다.

내년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전 출전 자격과 2023년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 전국체전, 진학, 실업단 입단 등에 이번 대회 결과가 반영되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또한 2024년 파리올림픽 결선 방식(상위 8명이 단계적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는 것)을 적용해 선수들의 국제 경기력 적응



국가대표 진종오가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 본선 경기에서 추가은과 조를 이뤄 경기를 하고 있다. 뉴스

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는 대한사격

연맹 명예회장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한국사격의 발전과 스포츠

발전 기여를 위해 창설했다. 1955년 대한사격연맹 창립 이후 기업이 주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격대회다.

2002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한화는 21년간 200억원 이상의 사격발전기금을 지원하며 한국 사격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사격연맹 김태호 실무부회장은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는 국내사격 선수들의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국가대표 선수들 및 유소년 사격인재 발굴 등 사격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반인들도 사격 종목에 쉽게 다가서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회 기간 동안 창원국제사격장 내 관광사격장에서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열린다.

스카이데일리/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